

與, 尹 대통령 퇴진안 찬반 갈등 격화... 친윤계·친한계 대립

TF, '내년 상반기 대선' 로드맵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제시 친윤계, 임기 단축 개헌 주장 친한계, 퇴진 시점 불만 제기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실시를 담은 윤 대통령 퇴진 및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초안에선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선택지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3개 분야로 나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의원 회동 후 비상의원총회장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 퇴진 로드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인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TF의 이 같은 퇴진 로드맵에 대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길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2월 내지, 3월의 하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야 시점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많이 있다. TF의 선택지에 즉시하야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

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퇴진 방안에 대해 "정치적 타협으로 예측 가능한 타임 스케줄을 내드리면 탄핵으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금 탄핵해도 어차피 임기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 민주적인 방법과 정치를 동원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임기 단축론을 꺼냈다.

이어 "민주적인 시스템을 작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과 전세계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중진은 오전 회의를 열고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 표명으로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돼 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동 결과에 대해 "중진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10일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이르면 12일 선출을 위한 의원들의 표결을 거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곽종근 "계엄군 명령 거부하지 못해 후회...尹과 2차 통화 있었다"

(육군특수전사령관)

정치적 중립 위반 인정하며 양심 고백 계엄군 선관위 서버 압수 시도 증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금 되돌아보면(계엄 선포 후) 초기 투입될 때, 명령 수행할 때부터 안 된다"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군 투입 명령을 받자마자 반대할 용기가 왜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및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까지 4개 부대가 국회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사령관은 "당시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 한다는 사명이 앞서다 보니 충출을 한 것"이라며 "(당시) 계엄상황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 총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용 문제, 안전 문제, 국회 진입 문제 등에 항명죄란 것을 알았으나 중간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작전 철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45년간 지켜온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고 비판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면 최초 명령

에 거부하지 못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현안 질의 초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전 현안질의 후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엔 윤 대통령의 추가 통

화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곽 사령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전화를 또 받았나"라고 묻자 약 10초간 침묵을 지키더니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제가 고함치기 전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하자 곽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윤 대통령이 추가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제한 사항"이라며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비화폰을 이용해 국회로 투입된 707특임단이 어디까지 갔냐고 곽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됐지만, 추가로 윤 대통령과 곽 사령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곽 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가 중요하다고 곽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방치됐다"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성일종 국방위원장에 속히 오후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

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대해 정성우 육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이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성우 1처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이 법무관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묻자 정 1처장은 "위법성에 대한 사전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서버 복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세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으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됐다"고 했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문상호 육군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갔다"며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문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원·달러 환율, 1420원대 안착... 외환 당국 개입 효과

10일 원·달러 환율, 달러당 1426.90원 정치 불안 속, 상승 가능성 여전히 존재

비상계엄령 후폭풍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에 자리를 잡았다. 외환 당국이 환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내비치면서 진정세를 보였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일 '억김치프리미엄'이 지속됐던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심리가 대부분 회복됐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6.90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0.10원(0.70%) 하

락(원화 가치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환율 하락은 외환 당국이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갑작스러운 환율 하락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아침 외환 시장 개장에 앞서 진행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야당 주도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불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빠르게 상승했

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장중 한때 1444.7원까지 상승했고, 탄핵 불발 이후 처음 열린 장인 9일에도 장중 최고가로 1438.3원을 기록했다.

탄핵 소추안 불발로 비상계엄령의 후폭풍이 장기화할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2차 계엄령 가능성 등 우려도 제기되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것.

당국의 개입 가능성 시사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에 자리를 잡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정치적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두산에너지빌, 로봇틱스와 분할합병 무산

내일 임시 주총 열지 않기로 정치 불안·주가 하락 결정타

두산에너지빌리티의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이관하는 분할 합병안이 무산됐다. 이는 탄핵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0일 임시 이사회에서 분할 합병안을 의결할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임시 주총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다.

박상현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4차 주주서한에서 "갑작스러운 외부환경 변화로 촉발된 시장 혼란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하면서 회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임시 주총에서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사업 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해,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등 불안한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고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차현정 기자 hyeon@